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눅 10:37)

1. 우리는 일본인의 이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인을 선한사람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선민이요, 모압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한 모압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롯기와 마태의 예수님 족보 이야기(마 1:5)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놀라움과 신비로움이 늘 이웃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한 번도 이웃을 경시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을 거의 선한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깨닫게 만듭니다. 유대인의 이웃은 이스라엘이라는 테두리를 넘어 사마리아를 포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행 1:8). 아니 그리스도인의 이웃은 모든 민족과 땅 끝까지를 포함합니다(마 28:18~20).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언제나 이웃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 처럼 「선한 모압인의 이야기」(구약)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신약)는 복음의 특수성과 보편성만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깨닫게 만들어 줍니다. 그 핵심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마 22:34~40)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인 선교사와 함께 일본기독교개혁파 중부노회에서 함께 일본인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미국인 선교사 가정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큰 딸의 대학 졸업식에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기회에 켄터키에 계신 미국인 선교사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몇 년만에 만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켄터키에서 서로 만날 때까지 그 선교사는 셀수도 없이 「I can't wait to see you(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서 못 기다리겠어요)」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선교지 일본을 떠난 안타까운

마음과 동료 선교사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 저의 마음도 울컥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의 사모님은 자신들이 사는 옆동네의 교회로 매주 가서 미국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와 저희 부부는 서로 국적은 다르지만, 일본인을 이웃으로 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엡 2:19).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도 상당히 다릅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적지 않은 서양인 선교사들이 일본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많을 때는 3,0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수 백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본에서 사역하는 백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미국 장로교(PC USA) 선교사로서 나고야를 거점으로 한 그 선교사님은 일본인 구원을 위해 수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켄터키에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언어와 문화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치명적인 과거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정치적으로 매우 대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없으나,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는 약 1,500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양인 선교사들이 줄어든 만큼 한국 선교사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인을 중심으로 한 서양인 선교사이든지 한국인 선교사이든지 일본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공통점은 일본인의 이웃이라는 사실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이웃은 일본인입니다. 최후 심판날에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2천 년에 한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어신 것처럼 우리들 각자에게 똑같이 되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심내용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는 이웃의 범위를 모든 민족, 땅 끝까지 확대해 줍니다.

2.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



존 스토틀(John Sttot, 1921~2011)는 그의 책 「현대 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반 인종차별 정책과 비폭력, 다시 말하자면, 정의와 평화에 헌신했던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1929~1968)은 1963년 8월 28일에 4분의 3은 흑인, 4분의 1은 백인으로 이루어진 250,000 명의 군중을 이끌고 워싱턴 DC로 행진하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다민족 미국에 대한 그의 꿈을 제시하였다.

“나는 조지아 주의 붉은 동산 위에서 전에 노예의 아들과 노예 주인의 아들이 함께 형제애의 책상 위에 앉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불의의 열기로 뜨거운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화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네 아이가 그들의 피부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개성에 의해서 판단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나는 악의에 찬 인종 차별주의자들이 있는 알라바마 주에서 어린 흑인 소년 소녀가 백인 소년 소녀와 형제자매로서 함께 손을 잡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소란한 불협화음을 형제애의 아름다운 고향곡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언젠가는 자유로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위하여 함께 일어서서 정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I have a dream」 연설중에서)」

지상에서와 달리 천상에서 우리는 구속받은 일본인들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요, 이웃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세속화와 다원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첫번째는 이웃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요, 그 중심에 일본인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흑인과 백인의 형제애를 부르짖던 마틴 루터 킹 목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한일간의 형제애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사명입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중보기도는 선교사의 힘의 원동력입니다.

1. 고령자가 많은 이누야마 교회가 차세대의 교회일군들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 예루살렘교회(교회형성)와 안디옥교회(복음선교)를 잘 닦아가는 이누야마교회가 되게 하소서
3. 주은/주향 : 매년 여름이면 일본으로 돌아와서 가족애와 일본교회를 섬기기도 하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19 로 인해 일본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두 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하소서.
4. 후원금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채워지게 하소서
5. 우리 부부가 일본인들을 사랑하며 잘 섬기게 하소서

2020년 8월 1일

일본 이누야마(犬山)에서
김기태/김혜금(주은, 주향) 드림